

‘광주형 AI-디지털 트윈’ 기술 햇빛발전소 설치

제2순환도로 방음 터널 등 이용 드론 활용 3D입체 지형정보 구축 인공지능으로 설계·유지보수까지

현실 세계의 기계, 장비 등을 가상 세계에 똑같은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햇빛발전소가 광주에 들어선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제2순환도로 37.66km 구간에 방음 터널 등을 활용한 67.3MW 규모 햇빛

발전소가 설치된다. 햇빛발전소 설치에는 광주형 AI-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 기존 디지털 트윈기술은 현실의 사물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복사하는 수준이었지만, ‘광주형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기술은 드론을 통한 원격 탐사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가상 설계 및 분석,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한 유지보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드론이 광주상공을 비행하면서 지형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패널 점검 플랫폼’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3D 입체지

도를 제작하고 열화상 정보, 연간 일사량 및 발전량 등도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된 정보를 활용하면 유휴지,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최적 위치와 설치가능 면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정상 작동여부도 인공지능이 실시간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스스로 분석해 점검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입체지도 위에 발전소를 가상으로 설계하면 인공지능이 투자비와 발전수익을 분석해 태양광 보급사업의 추진 기간과 비용 등을 줄이는 효

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집·분석된 입체 지형정보는 태양광 설치에는 물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리, 재난재해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순경중광주시인공지능산업공단은 “광주형 그린 뉴딜은 광주시의 강점인 인공지능과 연계 추진해 다른 지역의 그린뉴딜과 차별화 된다”면서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국내외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1300만원

광주시는 “22일부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 720대와 화물 480대 등 전기 자동차 1200대, 전기 이륜차 200대다. 신청 전일까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 내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당 534만~1300만원, 전기 화물차 900만~2600만원, 전기 이륜차 120만~330만원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영업점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한국RE100위원회-광주기업RE100추진협의체 간 상호협력력을 위한 ‘광주형 RE100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한국 RE100 위원회와 손잡고 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

자문·심사·투자 유치 등 제공

광주시가 관내 기업의 재생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선언하고 다양한 재생 에너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RE100(Renewable Energy 100%) 전문 자문단체인 한국 RE100 위원회, 광주 기업 RE100 추진협의체와 업무협약을 했다.

한국 RE100 위원회는 관련 정책, 기술 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에 사무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에 필요한 자문, 심사, 투자 유치, 재생에너지 조달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의 에너지, 기후변화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2019년 출범해 국내 기업의 자발적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형 RE100(K-RE100) 가입 기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시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필요

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제 사회는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BMW, 애플 등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 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저탄소, 친환경 경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글로벌모터스 일반직공채 경쟁률 76대 1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일반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3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7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GGM에 따르면 경영지원본부, 사업기획

본부, 상생안전실, 생산본부, 생관품질본부 등 일반직 사원 43명을 선발하는 공채 원서 접수에서 모두 3274명이 지원, 7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기술직 신입사원 경쟁률(67.8대1)을 뛰어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22개 시·군과 수집·통합 개방

전남도는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와 지역균형 뉴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도, 시·군, 유관기관, 빅데이터 전문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 착수에 돌입했다. 전남도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된다. 이는 사업에 따라 도와 22개 시·군, 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하고, 수집된 정보는 도민이 쉽게 활용해 웹개방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특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특화분야 분석 과제로는 스마트팜, 과수 병해충 예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한 농가별 농업 생육 데이터와 병해충 발생내용 분석 실적을 농가 현장 컨설팅에 적용하고 효과성을 검토해 점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8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와 민간 개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을 계기로 고수요 데이터 및 분석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발전시켜 과학적 도정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혁신위, ‘청렴도 꼴찌’ 광주시 조직문화 개선 권고

실·국 근무성적 개인별 순위 공개도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보조금 사업과 인사 공정성 강화 등 행정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2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맞은 청렴도를 최상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혁신추진위는 18일 제22차 전체 회의를 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확정, 광주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인사·조직 문화 개선으로 새로운 업무 환경 조성,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3대 기본 방향, 28개 혁신과제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목표와 성과 측정 자가 진단표를 제출하고 시민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 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혁신추진위는 특히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다면 평가, 근무 평정·인사 담당 분리, 실·국 단위 근무 성적 평정 개인별 순위 공개 등 인사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청렴 해피콜, 비리신고 시스템, 우수 부서 포상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자 개선책을 모색하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은 이용섭 시장이 한달 내에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혁신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계획에선 내부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청렴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용섭 시장도 (혁신추진위) 청렴도 향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MG대광새마을금고

창립40주년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아파트 분양자금 대출한도 최고 70%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최고 80%	햇살론 최고 2,000만원 <small>(근로자 최고 1,500만원)</small>
---------------------------------------	---------------------------------------	--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